

홍남부두 탈출한 이춘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기적의 배' 메리디스 빅토리호

1만4,000명 실패 필사의 탈출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

한 사내의 파란의 삶을 통해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압축해서 보여준 영화 '국제시장'. 영화 도입부에 어린 주인공 덕수가 흥남부두를 탈출하기 위해 로프를 타고 올라 간 배 한 척이 잠시 등장한다.

선박학 군수품 전부를 바다에 버린 대신 피난민 1만4,000명을
사지에서 살려낸 미국 화물선 메리디스 빅토리호. 군함도 아닌
단일 상선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해 뒀은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다. 역사 저편에 가린 이 배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였던 빌 칼버트가 선장과 선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2000년
발간한 책 '기적의 배(Ship of miracles)'로 반세기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춘애(88) 할머니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흥남부두에서 이 '기적의 배'를 타고 내려와 우암동에 뿌리를 내렸다. 우암동에는 아직도 망향가를 부르며 눈을 짓는 이북파주민들이 적지 않다. 분단 70년. 이춘애 할머니의 증언과 책의 기록을 바탕으로 생명과 자유를 향한 항해를 따라가 본다.

구순을 바라보는 이준해 할머니는 정정했다. 작년까지 우암동 집 맞은편 양장점에서 재봉틀로 직접 옷을 만들어 팔 정도였다. 65년 전 그 날의 기억도 또렷했다.

할머니가 메리디스호 빅토리아(이하 메리디스호)를 만난 건 1950년 12월 22일 깊은 밤이었다. 시부모와 스무살 가까이 부딪고 있던 빈 집에 숨어들었다. 그날 밤 늦게 메리디스호가 굳게 닫힌 플랫폼을 열고 피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스무처럼 물러선 피란인이 지평선을 이뤘다. 평소 삼십년치 살아버지는 23살 머리에겐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면 죽는다”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만큼 급박했다. “흑인군인들이 고함을 치며 마구잡이로 배에 태우기 시작했어. 조영이 너무 배가 아파 어디가 어디지 분간도 안되고, 우리 가족은 온 줄게 배 제일 밑바닥에 자리를 잡았어.” 피난 배안 지는 달빛의 인신취이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구원의 순간이었다.

건조된 자 5년 된 8,000톤 메리디스호는 원 래 10만 톤을 무게 위해 12월 20일 고장부두 에 입항했다. 화물선인 탓에 정원은 총 60명 에 불과했고 제트엔진을 갖지 않고 있었다. 급 계 제트엔진을 모두 버리고 피란민을 태우기로 결 정했다. 피란민 11선은 22일 밤 9시30분에 시 작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10분에 되어서야 끝이 났다. 14시간 만에 갑판 아래 5개 화물창에 피란민을 채우고 이후 갑판을 메웠다. 로프를 타고 계류장과 모으던 피란민들 중에는 었든 아기를 놓치거나 인파에 깔려 죽는 아이도 있었 다고 책은 기록하고 있다. 영화 30도를 밀도는 극한의 추위,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생자극 그 자체였다.

홍남철수 때 대위로 복무한 헤이그 전 미 국
무장군은 훗날 인터뷰에서 “홍남철수의 가장 어
픈 기억은 누군가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면서 무
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심지어 허리까지 오는 바
닷물 속에 서 있던 피난민들을 바라보는 일이었
다”고 회고했다. 정원의 23배를 넘긴 1만4,000
명을 태우고 메리디스호는 황급히 홍콩을 벗어
났다.



1950년 흥남부두를 탈출해 우암동에 살면서 양장점을 운영한 이춘애 할머니.

었다. 피란민들은 몰랐지만 항로 곳곳에 2차대전 때 사용했던 기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앞서 몇몇 선박들이 기뢰에 부딪히 폭침된 사례가 있어 선장과 선원들은 극도로 긴장했다. 그러가하면 피란민들이 추위를 봄을 위해 배 안에 남아 있던 센트 연료통을 훔치 피우기도 했다. 흔히 비배산한 선원들이 그리 불을 지기만 찾지. 흔히 최고의 구조작전이 인류 최악의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평화로운 순간도 있었다. 홍해를 버는 난 그날 밤 산모가 갇혔던 사내 아기를 낳았고 선원들은 아기에게 '김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4명의 '김치'가 태어났다. 그렇게 메리 더비호는 피란민 1만4,005명을 싣고 동해를 지나 부산으로 향했다.

추위와 배고픔, 극도의 피로감이 겹쳐 할머니는 배 밑에서 돌부처처럼 웅크린 채 굳어있었다. 하지만 수완이 좋고 활동적인 이마바는 수시로 갑판으로 올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곤 했다. 그러다 이상한 소문을 듣고 내려 왔다. 배가 부산으로 가지 않고 피란민들을 바다 한복판에 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흥흥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조용하던 배 안이 술렁이기는 시작했다.

영화 '국시지장'에서는 메리디스호가 부산항에서 피란민들 하선시키는 걸로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메리디스호는 2월 13~14일 이튿날 아침 부산항에 들어왔던 정박을 거부당했다. 부산에는 이미 100만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과 시설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승무원들은 피난민들이 보일 반응이 두려웠다. 자칫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란민들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국 식량과 화장과 몇 명을 태우고 배는 80km 떨어진 거제도로 향했다.

25일 메리다시는 거제도에 도착했지만 지형 탓에 해안에 배를 대지 못해 해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9시15분 피란민들은 상륙작을 이용해 장승포항으로 하선을 시작했다. 피란민 이예만대 51간 30분이 걸렸다. 1만400명 가운데 한 항역의 사상자도 없이 메리다시는는 거룩한 사활의 항해를 끝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렀다.

시부모와 함께 장승포에 도착한 할머니는 이후 시아버지가 "부산으로 가야 고향에 살게 할 수 있다"고 해 부산으로 왔고 3년 뒤 피란 때 헤어진 남편과 재회했다. "두 달만 있으면 고향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게 65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잖아요."

정원 233배 넘기며 생존 위한 항해

사흘간 항해... 다섯 생명 탄생

부산항 입항 거부로 거제도 하선

사상자 전무 '크리스마스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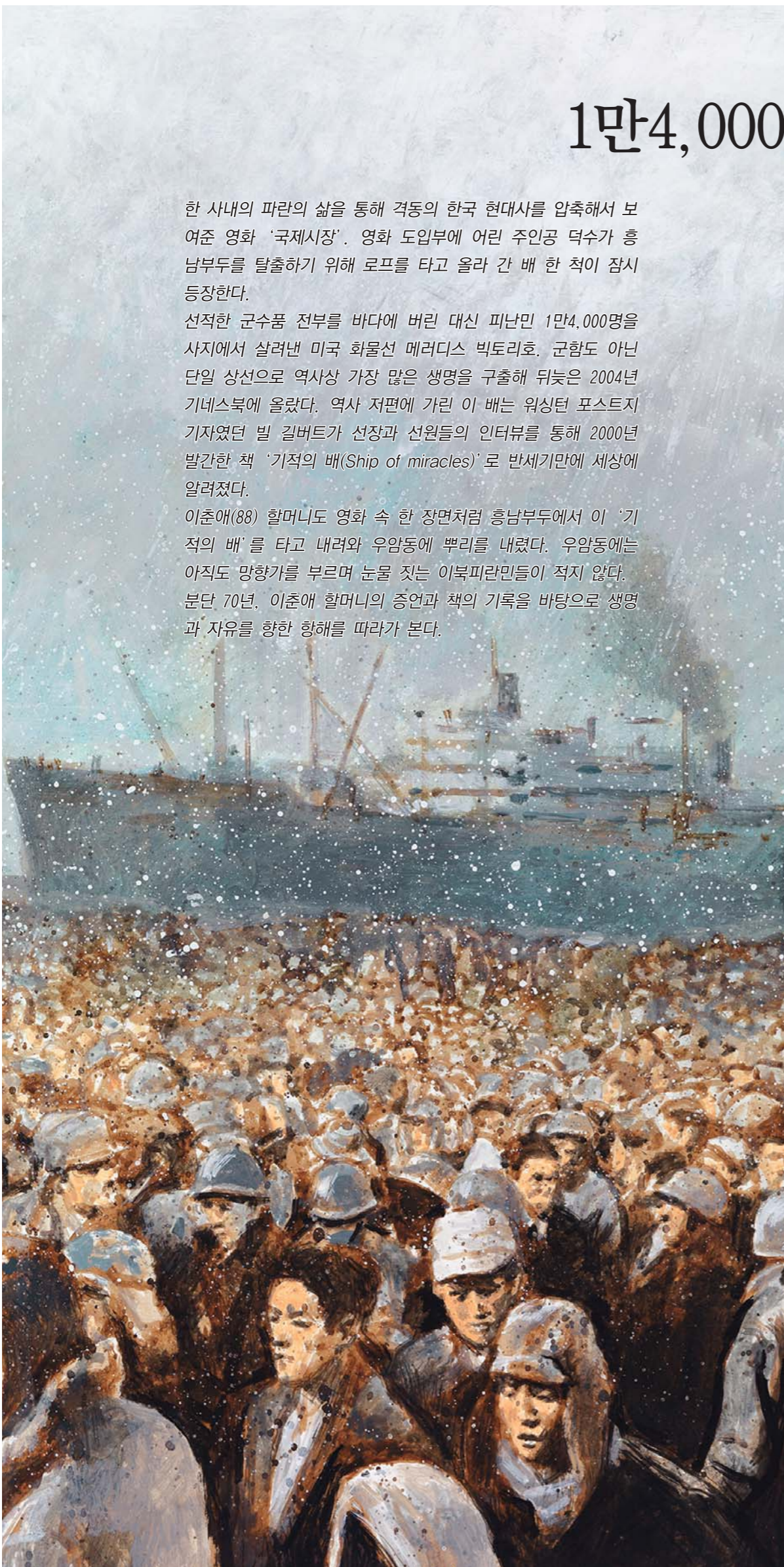
사람들로 어터질 듯한 좁은 배 밑창에서 할머니는 살았다는 안도의 함께 피난 배 쪽은 기억을 되짚어와 했다. 항복후에도 살았던 할머니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시부모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마을을 유지했던 사야비지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칫 일가가 몰살할 수도 있었다. 성진시(지금의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단청까지 갔다. 사람들이 꼭 찬 겨울에서 발이 비파에 닿지 않고는 상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기차가 차가 차질을 버리고 달아나는 틈에 흥남까지 건너 내려와야 했다. 북한군의 기총 사격을 수차례 받았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슬픔을 지겨웠다. “남보라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아사람만 따라 걸었지요. 그런데 앞에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걷는데 아이 머리가 자주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삼해서 보니 아기가 죽어있었어요. 그 부모는 아이를 눈누당이에 파묻고 다시 피난을 떠나야 했지요. 그 심정이 어찌했을지요...” 할머니는 65년이 흐른 지금도 전쟁의 가장 이른 상처로 이 대목을 꼽았다.

흥남항을 벗어났지만 항해는 순조롭지만은 않

■ 흥남 탈출의 숨은 영웅들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고립된 10만 명에 달하는 미 10군단 병력과 한국군을 대피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 해서 피란민들을 철수시킬 계획도 강간도 없었다. 이때 민간인 신분으로 통역을 맡았던 현봉하(1922~2007) 역학박사가 10군단장 알론조 소장과 메러디스 빅토리하인스 레너드 라루 신장을 소경지게 설득한 끝에 피란민들을 태울 수

있었다. 현 박사는 흥남 철수로 괴리된 9만8000명의 목숨을 살려 '한국 땅 선들라'로 불린다. 메러디스호의 레너드 라루(1914~2001·사진) 선생은 휴전 한 해 뒤인 1954년 가톨릭 수도사가 되어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튼수도원에서 종신재향 뒤 평생 수도원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 당시의 긴박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피란민들을 묘사한 그림. 일러스트=국가보훈처 제공, 백경중 화백 도안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
 흥남 철수 ~ 거제도 도착 향해 일지

1950년 12월 23일
11:10 피란민 1만 4,000명 태우고 흥남부두 출항

23일 밤
선내에서 첫 아기 출산

24일
부산항 도착
수용공간 없이 입항 거부
식량과 통역관 태우고
거제도 이동

25일
거제도 해상 정박

26일
09:15 거제도 장송포에 피난민 이양 시작
14:45 피난민 하선 완료

그래픽 원작

그래픽 왕지환

신일 이불 솜공장



- 현솜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껴매 드립니다.
- **혼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목화솜, 명주솜, 베개솜** 있습니다.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47 (영호동)

☎ 051)626-3558

☎ 010-3831-2457

장어의 효능

1. 기력을 회복하고 정력 향상
2. 여성의 피부미용과 체력보강
3. 여성의 노화방지 및 성인병 예방
4. 여성의 산후회복 및 골다공증 예방
5.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 예방
6. 어린이 허약체질개선 및 두뇌발달 향상



사계절
보양식

바다장어

웃골

☎ 625-0123 (웃골시장 대면5동 새마을금고 옆)

100% 국내 자연산
장어탕정식 / 장어전골 / 장어구이 (단체·예약손님 환영)

고품격 장례문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배 도 성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경안동) T.(051) 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구. 동래백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1 (부곡동) T.(051) 582-1041(오! 빨리 장사할)



DEMC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62 (양정2동 신45-1) T.(051) 866-3757 / 850-8577

기장병원 장례식장 T.(051) 724-1024



Curves

근력운동 + 유산소운동 + 스트레칭 = 30분OK!

여성전용 30분순환운동 커브스

무료체험&체지방측정
커브스 옹호클럽 628-3020

결혼 전문회사 국제·국내

 (주)진성코리아부산본사 www.jkv.kr

■ 국내: 일반인 공무원 전문직 vip고객 초, 재, 황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좋은 인연 찾아 결혼성사까지 무제한 미팅 주선

■ 국제: 베트남 필리핀 몽골 동남아 7개국전문 베트남통역 상주 근무 신부무료교육 주2회4시간가량 가정 맞춤 사후관리경생 보장 국제결혼서류 부모초청생 비자서류 국적취득 귀화서류 항공권예약

결혼을 잡하는 비결: 특히 국제결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고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홈페이지 반드시 열어보시고 직접 회사방문,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 하세요. (비용을 싸게 해준다는 무등록업체에 속지 마세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을수 있는 무법업체 선택 필수)

7000만원, 보증보험가입업체 국제 등록번호: 부산 003호 국내 등록번호: 부산 005호 사업자등록번호: 608-81-63303

대표전화: 557-1300 연중무휴 상담전화: 010-4550-3085

위치: 지하철1호선 등래역 2, 4번 출구앞 평우빌딩4층